

A stone sculpture of a rabbit, possibly a traditional Chinese zodiac figure, is shown against a black background. The rabbit has a long, upright ear and a small, smiling mouth. A white speech bubble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rabbit's head, containing the Chinese characters '你好' (Hello).

你好

## 양, 羊, sheep의 사전적 의미

| 소목(偶蹄目) 소과 양속의 총칭

분류:소목 소과 양속

생활방식:떼를 이룸,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함

크기:몸길이-수컷 1.2m, 암컷 1m, 어깨높이-수컷 1m, 암컷 90cm, 몸무게-수컷 115kg, 암컷 95kg

체색:흰색·검은색·갈색·붉은색

생식:임신기간 147~161일, 한 배에 1~2마리 낳음, 다산종은 3~5마리 낳음

| 양은 가축인 면양(O.aries)·무플런양(mouflon)·아르갈리양(argalii)·빅혼(bighorn)·우리말(ural)·아시아무플런(Asian mouflon)·달리빅혼(dallii bighorn)·시베리아빅혼(Siberian bighorn)·아메리카빅혼(Rockey mountain sheep) 등 야생의 양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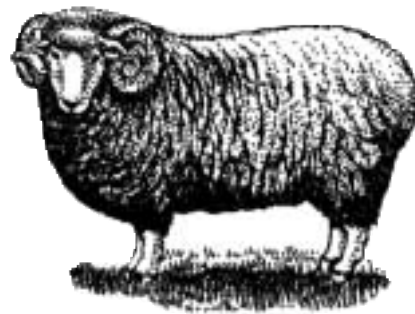
| 염소류와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우나, 양의 뿔은 단면이 삼각형이고 앞가두리는 곧으며 대개는 뒤쪽의 아래를 향해 소용돌이 모양으로 굽는다. 또 염소류의 수컷에는 꼬리의 밀부분 아랫면에 1쌍의 취선(臭腺)이 있으나, 양에서는 이 선이 없고 안하선(眼下腺)·제간선(蹄間腺)·서혜선(鼠蹊腺)이



있다. 두골에는 누공(淚孔)이 안외연(眼窩緣) 안쪽으로 뚫려 있는데, 이 점이 염소류와 다르다. 다른 반추동물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되새김질하며, 위는 4실로 나누어진다.

| 뿔은 암수 모두 없는 것과 수컷에만 있는 것, 암수 모두에 있는 것 등 여러 가지이며, 대개 수컷의 뿔이 크다. 몸의 크기는 품종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수컷이 암컷보다 크다. 대형인 것은 몸길이가 수컷 1.2m, 암컷 1m이고, 어깨높이는 수컷 1m, 암컷 90cm이며, 몸무게는 수컷 115kg, 암컷 95kg이다. 주둥이는 좁고, 털이 있으며, 입술은 가동성이다. 아래턱에 수염이 없다. 꼬리는 야생종이 짧고 가축종은 긴데, 굵게 자라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 품종도 있다.

| 가축종은 체모가 조밀하며, 굵은 털은 거의 없고 솜과 같은 털이 대부분인데, 이 털을 면모(綿毛)라고 한다. 얼굴과 네 다리에만 약간 굵은 털이 있는데, 가늘고 곱슬곱슬하다. 그러나 야생종에는 굵은 털과 솜털이 모두 있다. 털의 표면은 좁고 날카로운 비늘이 지붕에 갠 기와처럼 뾰뾰이 늘어서 있으므로 압축하면 서로 얽혀서 펠트가 된다. 털 1개의 굵기는 털의 품질이 좋은 레스터종의 경우 약 500분의 1cm, 잭슨메리노가 약 2,000분의 1cm이며, 빛깔은 흰색·검은색·갈색·붉은색이다.



**십이지十二支 8번 수호신은 양未** | 십이지를 구성하는 12동물의 멤버는 쥐子, 소丑, 호랑이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많고 많은 동물 중 십이지 대표선수로 등극, 한 해 동안 달력 위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연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임종을 앞둔 석가에게 문안을 온 12동물을 순서에 따라 해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석가유래설, 석가가 천국으로 통하는 12개의 문을 지킬 수문장을 선정하여 1년씩 당직을 서게 하였고 실은 고양이가 1순위였으나 볼 일을 보러 간 사이 쥐가 자리를 꿰찼고 그리하여 둘은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도교장자설, 하나님이 모든 동물에게 이르시길, 세배를 오는 순서대로 12등까지는 상을 주겠노라 하였고 경주에 자신이 없는 소는 특유의 근면함으로 새벽부터 출발을 하였다. 이를 농칠세라 눈치 빠른 쥐가 소 등에 올라탔고 결승점에서 잼싸게 뛰어 내려 1등을 차지하였다는 유교황재설이 그것이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밝혀낼 수 없으나 변하지 않는 건 순서. 그리하여 올 2003년은 앞 뒤 짤 것 없이 12년만에 돌아오는 8번 선수 양未의 해다. 양은 본디 순하고 선한 동물로 인간 세상에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온순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높은 곳에 오르기 좋아하고 놀리면 필요 이상의 수선을 피우는 양의 양면성이 그 해석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 “양띠는 온순하고 참하다?” “양띠는 방정맞고 맹랑하다?” 과연 당신이 보아온 양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양자리 3월21일~4월19일** | 보이오티아의 왕 아타미스는 네페레와 결혼하여 플리크소스와 헤레타 남매를 얻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 얼마지 않아 아타미스는 재혼을 하게 되고 두 아이를 받게 된다. 새로운 생활에 빠져 전처의 자식들이 낯 보기 싫어진 매정한 아버지 아타미스. 흉년이 든 어느 해 신탁이라는 미명 아래 전처의 아들 플리크소스를 제우스신에게 바치려 한다.

이 사실을 안 전처 네페레는 금색의 양을 보내 플리크소스와 헤레타를 구하도록 한다.

그런데 금빛의 양이 두 아이를 안전한 나라로 피신시키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막는 해협을 건너던 순간, 헤레타가 바다에 빠져 죽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우여곡절 끝에 플리크소스는 무사히 코르키스에 도착하게 되고 금빛의 양은 제우스 제단에 바쳐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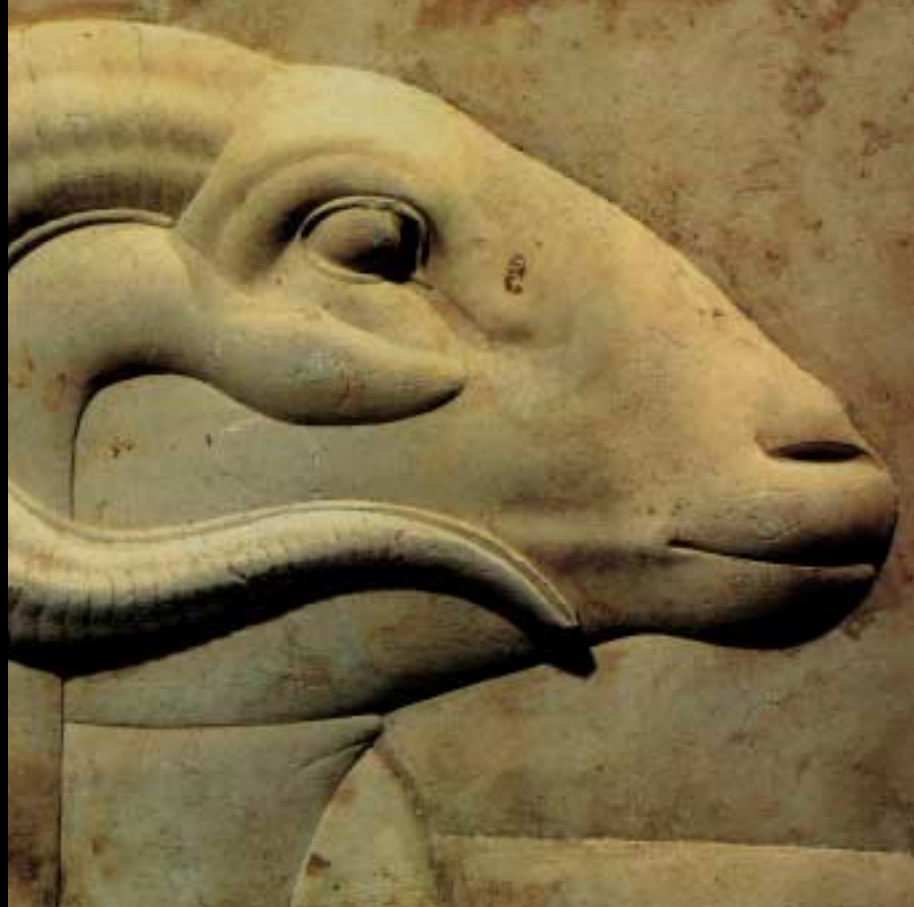


| 양자리는 정력이 강한 화성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일까. 양자리를 별자리로 둔 사람의 성격이 양의 이미지처럼 온순, 순진난만, 민민함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자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험가 기질이 있으며 또한 확신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목숨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독불장군이 되기도 한다.



| 양자리의 이러한 성격은 때로는 '열정적이다, 과감하다, 독립적이다' 와 같은 강점으로, 때로는 '편협하다, 성미가 급하다, 자기 중심적이다' 와 같은 약점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예로부터 중국 유목민족에게 있어 양은 용맹의 상징이었다.

때문에 귀신의 근접을 막기 위해 마을이나 집 입구에 양의 머리를 매달았다. 이는 액운을 막기 위해

집 안에 양의 형상을 장식하는 일본의 풍습과도 맥이 비슷하다.



또한 의미의 차이가 있기는하나 중국에서는 묘도(墓道)를 지키는 석상으로 양을 세워두기도 하였다.  
여기서 양은 효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젖을 먹을 때 무릎을 꿇는 양들의 모습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는 양의 다산 능력은 새해에 양의 기면을 만들어 쓰고 풍년을 기원하는  
러시아의 풍습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양모의 양심선언** | 1937년 양모의 주요생산국인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우르과이에서 내는  
기금으로 창설된 국제양모사무국(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에서 발급하는 '순모 제품'에만 사  
용되는 품질보증등록상표이다.

울마크는 순신모로서 99.7%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새로 만들어진 울 브랜드 마크는 신모가 최소한  
60% 이상, 먼 혼방시에는 55% 이상 함유된 혼방제품 중 IWS의 품질규격에 합격된 제품에만 부착할  
수 있는 마크다.



**양들은 침묵하는가** | 토머스 해리스의 원작이요, 조나단 님이 연출하고 조디 포스터, 안소니 홉킨스가 FBI요원 스타일링과 렉터 박사로 분한 「양들의 침묵」은 인피(人皮)를 벗기고 인육(人肉)을 먹는다는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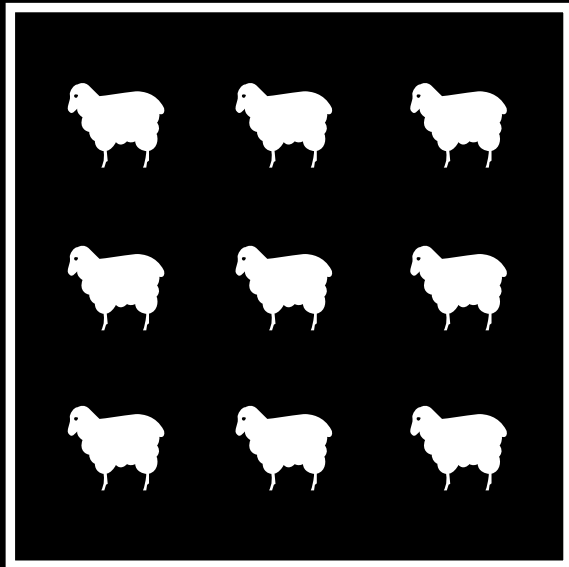
내면 속에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정상인이 되고자 하는 스타일링과 정신과 의사임에도 인육을 먹는 살인 방법을 일삼는 내면이 뒤틀린 한니발 렉터 박사. 여자를 납치하여 인피를 벗겨 죽이는 연쇄살인범 버팔로 빌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의 심연 속에 내재된 상처를 알아보게 되는데... 「양들의 침묵」은 인육을 먹고 인피를 벗기는 상식을 뛰어넘은 살인을 통해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근원과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를 얘기한다. 끔찍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다.



## QUIZ 양들을 침묵케 하라

매일 싸워대는 양들 때문에 양치기 소년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두 각 방을 쓰게 하려는데 도구는

정사각형 모양의 울타리 2개뿐이에요. 울타리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말쟁이의 동화적 표현(?), 양치기 소년 |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뒷산에서 양을 지키던 양치기 소년이 마을을 향해 목이 터져라 구조요청을 하고 있어요. 놀란 마을 사람들은 곡괭이, 삽, 호미 할 것 없이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숨이 턱에 차도록 뒷산으로 달려 왔어요. 그런데 글썽, 방금까지 겁에 질려 숨이 넘어가던 양치기 소년, 배꼽을 잡고 숨이 넘어가도록 웃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도 심심해서 장난을 쳤다는군요. 버릇없는 녀석. 벌써 늑대를 핑계삼아 사람들을 골려 먹은 게 두 번째나 된다는군요.

“늑대다, 늑대다,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구제불능이죠? 새빨간 거짓말이 색도 바래기 전에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양치기 소년의 간절한 구조요청에 마을 사람들은 코방귀만 뀌 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죠? 그 뒤로 마을에선 양치기 소년도 양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에요. 설마 흑시?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던 걸까요?



## 어린 왕자가 원하는 양 그림은

“여보세요. 양 한 마리만 그려 줘요!”

“뭐리구!”

너무나 뜻밖의 신기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거기에 순응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데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는 하였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지리, 역사, 산수와 문법밖에는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약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 소녀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양을 그려 주세요”

“싫어요. 이 양은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양을 그려 주세요.”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염소예요. 뿔이 나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이렇게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비행기 엔진 분해를 서두르고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강 그렸다. 그리고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다.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들어 있어.”

나는 이 어린 감정가의 얼굴에 감도는 명랑한 기색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예요!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제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이 양이 먹을 만큼은 있을 거야. 내가 그려 준 양은 아주 작은 양이야.”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세요! 잠이 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내가 이 어린 왕자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길 잃은 양 바라다 주기** | 성경에는 유난히도 양이 많이 등장한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목자면 예수님은 양이 되고 예수님이 목자면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양이 된다 하였다. 하지만 성경이 너무도 두껍다 보니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인데... 길 잃은 어린양의 집은 어디인가.

네가 단(壇)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 년 된 어린양 두 마리니 『출29:38』

모압 왕 메시는 양(羊)을 치는 자(者)라 새끼 양 십만(十萬)의 털과 수양(羊) 십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왕하3:4』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屠獸場)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53:7』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18: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牧者)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  
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오되 「요10:1~4」



## 양들의 유쾌한 놀림

| 오늘은 양들의 운동회날. 오래 달리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워낙 못하는 양순이 앞에 5마리의 양이, 뒤로는 5마리의 양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양은 모두 몇 마리일까요?



**양들의 식발식** | 양은 1년에 한 번 새 볍이 찾아오면 이발을 한다. 온 몸 이발은 대부분 동력전모기와 같은 기계가 해결해 주나 양의 수가 적을 때는 주인이 가위로 직접 깎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기계 깎기에 능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이발을 시킬 수 있는 양의 수는 200마리 이상으로 제 아무리 능한 가위손이 나선다 해도 비할 바가 아니다.

양모는 깎아도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뽀뽀이 흩어지지 않는다. 원래가 모여 사는 습성을 지닌 동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깎인 털조차도 단결력이 뛰어나 한 마리의 양으로부터 한 장의 양모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깎아진 양털은 겉면을 안으로 하여 개키면 된다.



| 양으로부터 가장 좋은 양모를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양이 2살이 되었을 때. 가늘고 곱슬거릴수록, 굵기가 10~70 $\mu$ m, 길이가 20cm 전후 등의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양모의 질과 가치는 반비례한다.

양모는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서 많이 생산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메리노종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자랑한다. 우리 나라의 양모 수요는 거의 수입에 기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세무 Chamois, 무스탕 Mustang, 토스카나 Toscana** | 세무는 Chamois goat라는 알프스  
영양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양이나 염소의 가공된 뒷면 가죽을 말한다. 무스탕과 토스카나는 털이 있  
는 상태의 가죽으로 무스탕은 어른 양의 가죽이요, 이태리 중부 지방의 이름이기도 한 토스카나는 어  
린 양의 가죽으로 무스탕은 털이 다소 억세고 긴 느낌이 나는 반면 토스카나는 부드럽고 촉촉한 느  
낌이 난다.

양가죽은 소가죽에 견주어 부드럽고 마찰에 약하다는 것 외에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쭈글쭈  
글한 느낌이 그것이다. 이는 양가죽 자체가 쭈글거리는 부분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50% 정도. 나머  
지 쭈글거림의 이유는 찢어지기 쉬운 양가죽의 결점을 보완, 양가죽을 두 겹으로 만들 때 공기가 들  
어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양가죽은 살아있는 실루엣이 생명인 여성 재킷 등에 주로 사용되며 가격은 양가죽 ▶ 소가죽 ▶ 돼지  
가죽 순이다.



**베이비 램 Baby Lamb, 램 Lamb, 무톤 Mutton** | 인류가 양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돌이나 칼 모양의 쇠붙 등으로 사냥을 하던 원시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고기 요리의 가장 큰 난점은 돼지고기나 쇠고기에 비해 섬유질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특유의 냄새. 이후 문명이 발달이라는 고속 전철을 타기 시작하면서 양고기는 발전(?)된 요리로 선을 보였는데... 생강, 마늘, 파, 후추, 카레 등의 향신료 가미하기, 끓는 물에 데치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냄으로써 양고기 요리는 냄새에서 탈출하게 된다.

[양고기 요리는 양의 개월 수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데 3~5개월 된 양고기는 베이비 램 Baby Lamb, 5개월~1년 된 양고기는 램 Lamb, 20개월 이상된 양고기는 무톤 Mutton이라 부른다.

양고기는 생후 12개월이 안 된 갈비 부위가 제일 연하고 맛있으며 색은 붉고 광택이 있는 것으로 백색의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 좋다.



요리에는 바비큐, 불고기, 스투 등 종류가 다양한데 양고기 자체에 점성이 뛰어나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한다.

양고기 요리는 세계 곳곳에서 즐겨 먹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이라크 등의 중동지역의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데 이유인 즉, 소나 돼지를 숭배하는지라 육류를 즐기지 못한다는 점, 양고기가 영양이 쇠고기만큼은 아니지만 값이 싸고 소화가 잘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다기망양 多岐亡羊 (多:많을 다 岐:갈림길 기 亡:잃을 망 羊:양 양)

| 열자의 우화에서 유래하는 이 한자성어는 길이 여러 갈래여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길이 많으면 오히려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먼 옛날 중국에 양주라는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이웃집에서 양을 잃어버렸다면 양을 찾는 데 양주의 하인들이 도와줄 것을 부탁 받는다.

“양 한 마리를 찾는 데 왜 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यो?”

“길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이오.”

한참 후 양을 찾으러 갔던 일행들은 모두 기진맥진하여 빈 손으로 돌아왔다.

“양은 어찌 되었소?”

“놓치고 말았소. 갈림길 속에 또 갈림길이 있어 어느 길로 도망갔는지 찾을 방도가 없었소.”

결국 양 주인은 여러 갈림길 앞에서 모든 길을 다 쫓아보려는 욕심과 다급함으로 양을 영영 잃어버리고 마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학문을 닦을 때나 다른 어떤 것을 배울 때 한 가지 목표가 아닌 이곳 저곳에 눈을 돌려 욕심을 부리다보면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인생의 교훈을 선사한다. 독서에 정신을 잃어 양을 잃어버렸다는 독서망양(讀書亡羊)도 이런 뜻을 전하는 한자성어라 할 수 있다.



**잠 안 오는 밤, 양치기가 되다** | 이런 저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잠이 들기 위한 체면으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을 한 마리씩 우리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래도 잠이 들지 않을 때는 집어넣은 양들을 다시 한 마리씩 우리 밖으로 몰아내기도 한다.

그렇게 세다 보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가 싶기도 한데 어느 순간 양을 몇 마리까지 썼는지도 가늠해지면서 잠에 빠져들곤 한다. 이렇게 양치기가 되어 양을 세는 방법은 이제 고전적인 체면요법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요법이 불면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 걸까. 결과는 낭만적이지 못하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왔다.

옥스퍼드대학 앨리스 허비 박사팀이 불면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양의 숫자 세기와 폭포, 해변 등의 아름다운 정경 상상하기, 자신만의 독특한 잠들기 방법 3가지를 놓고 가장 빨리 잠드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아름다운 정경을 상상하는 것이 그냥 잠을 청하는 것보다 약 20분 정도 빨리 잠들게 하는 반면 양을 세는 방법은 오히려 늦게 잠이 들었다고 발표했다.

양을 세는 방법은 자칫 지루함을 유발하여 다른 새로운 잠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양의 탈을 쓴 늑대** |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의 뜻인 즉, '양의 머리를 간 판으로 세워 놓고 개고기를 판다'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처럼 겉은 순진한 천사인데 알고 보면 속은 음모와 계략으로 차 있는 사람이나 경우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지금이야 한 풀 꺾였지만 학교에서 받았던 반공교육에는 양이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북한 사람은 항상 얼굴은 양으로 표현되지만 눈빛과 손톱, 발톱, 꼬리는 늑대의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반공 웅변대회에도 어김없이 북한 사람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항상 적화야욕을 꿈꾸는 입가에 피를 흘리는 늑대로 표현됐다. "이 연사 북녘 하늘을 향해 힘차게 외칩니다" 라는 절규와 함께. 그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리도 북한을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 같이 모두들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 반공교육의 힘은 참으로 대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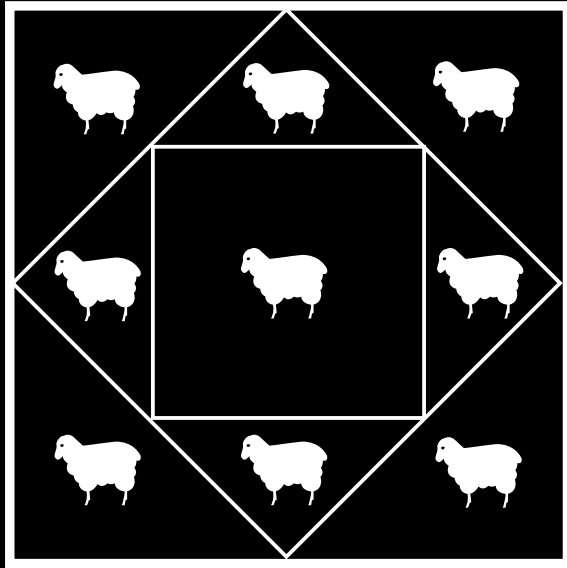


**우유의 업그레이드, 양유** | 소의 젖은 우유牛乳, 양의 젖은 양유羊乳. 양의 젖을 마신다구? 우유에만 익숙해진 우리에게 낯선 음료일 수 있다. 하지만 양젖은 옛날부터 널리 즐겨 마셨던 지금의 우유와 같은 존재였다. 안타깝게도 양이 털과 고기의 생산에 치우쳐 관리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마시는 음료로 축소되었지만 말이다. 흔하지 않은 만큼 귀한 것일까. 양유는 실제 우유나 염소젖에 비해 진하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분 82.8%, 지방 6.1%, 단백질 5.4%, 젖당 4.7%, 회분 0.9%의 성분을 지닌 양유는 장이 민감한 사람에게 잘 맞는다.

푸른곰팡이를 사용해 동굴 속에서 숙성시킨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로크포르 치즈 역시 원료는 양유가 사용되었다.



Answer 양들을 침묵케 하라



**복제양 돌리** | 쥐, 소, 돼지, 양, 사람에게 이르는 복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1997년 스코틀랜드에서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고 같은 해 영국에서 복제양 '트레이시'도 태어났다. 복제양으로 태어난 돌리는 새끼양 '보니'를 출산하는 등 현재까지 6마리의 아기양을 슬하에 두고 있다. 출산한 양들은 다행히 건강하나 돌리는 관절염, 비만 등으로 그를 태어나게 한 로슬린연구소 연구원들의 가슴을 짹짹 눌러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제로 태어난 돌리의 생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양들의 13년 수명보다는 짧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희생양 · 속죄양 · Scapegoat** | 희생양의 어원은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신 앞에 속죄의 의미로 바치는 양에서 희생양 · 속죄양의 의미는 시작됐다.

먼 옛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들어 속죄일贖罪日에 양 두 마리를 끌고 나와 한 마리는 신에게 희생양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스케이프고트감으로 지정한다. 사람들은 스케이프고트감으로 지정된 양의 머리 위에 자신들의 죄를 고해성사한 후 황야로 내쫓는다.



이후 희생양의 의미는 욕구불만에서 발생하는 파괴적인 충동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방향을 전환하여 발산하게 되는 대체적인 '대상'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 대상은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이나 흑인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양이 말을 낳다** | 양은 두 개의 뿔이 있는 양의 머리 모양을 본뜬 글자로 양을 의미한다.

양은 다른 한자의 부수로도 활용되어 다양한 한자를 만들어 내는데 대체로 양의 순하고 착한 뜻을 그대로 옮긴다.

예를 들어 양(양)자 밑에 큰 大(대)자를 써서 양이 크다는 의미의 한자는 아름답다는 의미의 美(미),

양(양)자 밑에 나 𠂆(아)자를 쓰면 '내가 곧 양이다'는 뜻으로 의로울 義(의)자가 탄생한다.

이외도 무리 羴(군), 기를 養(양) 등 다양한 한자를 찾아볼 수 있다.



**양치기 소년의 발명품, 철조망** | 양치기 소년 조셉은 양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뜰전을 피우기로 유명한 게으름뱅이였다. 주인을 닳은 까닭에 조셉의 양들 역시 알아주는 꼴통들이었는데... 심심하면 울타리를 뛰어 넘어 동네 콩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조셉이 동네 사람들의 원성을 듣게 되는 건 당연지사. '양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야말로 머리 아픈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의 눈 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쉬워 보이는 낮은 장미 울타리는 그대로 둔 채, 기어코 높은 울타리를 뛰어 넘는 게 아닌가. 옮겨니! 정답은 '가시'에 있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양치기 소년, 철사 울타리에 장미 가시를 붙여 양들을 시험하게 되고 역시 양들은 조셉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대장장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조셉은 철사를 꼬은 후 사이사이 짧은 철사를 끼워 울타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이 철조망 울타리는 특허를 받아 도둑 방지용 울타리로 사용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각국의 육군이 다투어 사용하게 되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지금이야 허찮아 보이는 철조망이지만 당시 조셉 부자의 철조망은 특허기간 17년 동안 미국의 회계사 11명이 1년이 걸려도 다 계산하지 못 할 정도의 권리금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는 후문이다.



## 양의 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 신미년: 1871 신미양요 -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군함 5척이 쳐들어와 강화도가 함락되다.

| 을미년: 1895 을미사변 - 명성황후가 일개 일본의 낭인들에게 살해되는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하다.

| 기미년: 1919 3.1운동 -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반기를 들고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나다.

1979 10.26과 12.12 - 박정희가 시해됨으로써 18년간의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는 10.26 사태와 군인들의 반란으로 나라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다.

| 계미년: 2003 계미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3년 순모 100%로 삼시다** | '잃을 亡, 양 羊, 얻을 得, 소 牛' 지금 당장은 작은 것을 잃지만 나중에 큰 것을 얻게 된다는 망양득우.

인간지사人間之事 망양득우亡羊得牛, 새옹지마塞翁之馬, 전화위복轉禍爲福 아니던가요. 어차피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요, 양의 탈을 쓴 양입니다.



